

창의(創意)와 인성(人性)의 東山, 칭찬받는 東山人



최기형 교감선생님

우연한 기회로 올 여름방학에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학사정관 특별연수'를 고려대학교에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인들의 대학 진학 결과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만족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지고지선의 책무인지라 각별한 관심과 열의로 이번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정책의 흐름과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고, 나아가 효율적인 진학지도 방법과 학교교육의 개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독서활동, 봉사·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모든 교육활동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근거 자료를 모으도록 해야 함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교과발달사항, 독서활동 등에 선생님들에 의해 기술되는 한 문장의 내용이 대학입시에서 때로는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방법은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아,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입시제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에 주력하는 바,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특목고 입시에서 사교육 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동산인들이 가장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인성이 겸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올 해부터 각 학년 영재실 학생들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학부모님들의 지도로 자율학습을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야간은 물론 토요일 오후나 휴일에도 학교에 나와 스스로 공부하는 동산인이야말로 입학사정관들이 눈독 들이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로 동산인의 인성(人性)은 전통적인 봉사활동과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을 통해 자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24명의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동구 치매노인재활센터인 '희망의 집'에서 매일 4명씩 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며 친손자처럼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하였고, 36명의 학생들이 학부모님과 함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장봉도 혜림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밖에도 독거노인돕기, 장애우 그룹홈 식구 봉사 등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으로는 20년 가까이 그린스카우트에서 선도하는 환경보전활동과 매달 시행되는 사랑의 성금모금 활동이 빛나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요즘은 급식 도우미 학생들의 희생적인 봉사활동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활동들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성과 진정성이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예의 바르고 진심이 담긴 마음에서 참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꼭 다음에도 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성(人性)과 관련하여 두 명의 학생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 명은 3학년 2반 김준성군입니다. 모든 동산인들이 알고 있고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동급생인 김태원군의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관교(管鮑之交)가 부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1반 조내황군을 칭찬합니다. 입학 후 지금까지 교정에서 눈앞에 쓰레기가 보이면 즉시 임의로 걷어냅니다. 인건기는 어느 반에서 잔반통 두 개를 3층 화장실에 놓아 버린 것을 혼자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참 자연스럽게 버려지고 실성이 없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낭중지추(囊中之錘)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입학사정관들의 눈에 띄일 것입니다.

앞에서 칭찬한 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동산인들이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릉 기원봉자 선생님들께서 매년 1학년들 심성훈련을 마치고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렇고, 수학여행을 인솔하면서 여행지의 숙박업소나 식당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시락 급식업체 직원분들이 또한 우리 학생들이 참 착하다고 합니다. 물론 '옥의 티'도 없지 않습니다. 간혹 화장실에 보이는 담배꽂초, 창문 밖에 버려진 휴지, 교정에 나뒹구는 쓰레기의 주인이 부끄러운 '옥의 티'입니다.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동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산인은 더불어 사는 마음을 지니고,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학생들입니다. 바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께서 좋아하는 예비 대학생들입니다. 모든 동산인들이 칭찬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